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㉑ 담산 신사 〈수월관음도〉

▶ 한줄 요약
명주실로 짠 비단 베일을 '사라'라고 하는데 고려시대 수월관음은 사라를 투명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르고 있다. 이 투명한 사라는 다른 어느 나라도 흉내내지 못한 고려만의 독창적인 표현 기법이다.



투명한 사라, 고려불화 전매 특허

'투명 사라(紗羅)', 이는 고려불화의 전매특허이다. 고려시대 수월관음은 사라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두르고 있다.(그림①, ②) 가늘고 윤기나는 명주실로 짠 비단 베일을 '사라'라고 한다. 관음보살 그림은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유행했던 불화 장르로 유명하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의 무수한 관음보살 그림,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특징이 바로 '투명 사라'이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 낼 수 없었던 투명 사라. 이는 고려시대의 관음보살 그림에 공통하는 고려불화 유일무이의 요소이다.

투명 사라는 요즘 유행하는 패션 용어로 치자면 '시스루(see-through)'인데, 얇고 비치는 소재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걸쳐도, 걸친 듯 안 걸친 듯, 내부 피부 및 장식의 실루엣과 모양이 다 드러나 보이게 된다. 아시다시피, 고려불화 수월관음도는 정교하고 화려하기로 이름나 있다. 디테일의 섬세함과 복잡함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그렇기에 '세계 최고', '세계 제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이러한 섬세하고 화려한 양식적 특징을, 중국 원나라 탕우는, 한 단어로 '섬려(纖麗)하다'라고 극찬한 바 있다. 섬려함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궁극의 요소, 결정적인 조건이 바로 '투명 사라'이다. 그렇다면, 사라가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부분. 투명한 사라는 백의관음을 독창적으로 해석해 표현한 것이다. 이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려만의 독자적 기술이다.

그림②. 일본 담산(談山)신사 소장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모습. 투명 사라와 붉은 치마가 인상적이다.

투명 사라 두른 고려代 수월관음
中 日 관음보살도엔 찾기 어려워
관음 보살 다른 이름, '白衣 대사'
백의관음, 독창적 표현 투명사라

고려불화 전매특허, '투명 사라'

극세사로 이루어진 투명 베일은, 바탕 모양이 눈송이(雪) 또는 물의 입자처럼 육각형 또는 마름모형의 다이아몬드 문양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는 빛의 다발들이 방사되듯 그려져 있다. 이러한 기본 바탕천 문양 위에는 무수한 둥근 원의 보상화(寶相華)가 묘사됐다.(그림①)

불교 미술에 나타나는 많고 다양한 꽃문양을 '보상화'라고 필자는 통칭하고자 한다. 불교미술에는 물론 연꽃 문양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연꽃인지 국화인지 모란인지 코스모스인지 딱히 알 수 없는 꽃문양들이 많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를 일찍이 '당초문(唐草紋)'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당(唐)'은 중국을 가리키는 말로, 그 뜻은 '당나라 풀'이라는 뜻이다. 사실 '당나라 풀'이라는 것은 없다. '고려 풀, 조선 풀' 같은 식물 이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다. 일본의 경우, 중국 당나라 때를 기점으로 신(新) 문물이 많이 건너왔는데, 당시 뭔지 알 수 없는 이 식물문양을 다수 발견하고, 자신의 나라에는 없는 '당나라 풀인가' 해 이렇게 불렀다. '중국'은 당시 일본에서는 '해외' 그 자체로 인식되었기에, 해외에서 들어온 새로운 것들은 모두 '당'을 붙여 이름 짓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예로, 닭튀김의 경우에도 일본에서는 '당'을 붙여 '唐揚げ(가라아게)'라고 한다.

이러한 배경을 갖는 '당초문'이라는 학술 용어가 일제 강점기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는 현재까지 그 용어를 아무런 고증 없이 쓰고 있다. 이렇듯 불교미술 속 꽃과 식물문양은 우리 지상의 것으로 딱히 특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모습을 하기에, 연화당초문 · 연화당초국화문 · 연화수국인동당초문 등 전문 용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런 많은 용어들이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는 것이, 문양이 비슷한 듯 모두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완전 똑같은 것을 찾기 어렵다. 단, '나선형으로 회전한다' '계속 분파한다'라는 동일한 패턴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 누차 언급된 대로, '보상화'라는 용어를 추천한다. 또는 영서화(靈瑞華) · 공기화(空起華) · 우담바라(優曇鉢華 · 優曇華) 등을 추천한다. 이들 표현들은 모두 경전에서 세상을 '장엄'하는 에너지를 지칭할 때 쓰이는 용어들이다.

'당초문'의 허와 실, '보상화문'

'보상화'는 극락의 풍경을 묘사할 때 나오는 보배의 누각(寶閣) · 보배의 땅(寶地) · 보배의 나무(寶樹)과 같은 맥락의 용어이다. 본바탕의 불성(佛性)이 세상을 '청정에너지로 장엄할 때' 나타나는 보신(報身)의 모습이다. 이것이 중생의 눈에 보이도록 덩어리져 형상을 나투면, 그것이 응신(應身)으로서의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처와 보살의 형상인 것이다.

'영서화'는 신비하고 상서로운 꽃, '공기화'는 공(空)의 바탕에서 일어난 꽃, '우담바라'는 붓다가 세상에 나타날 때 피는 꽃이란 뜻인데 모두 불성이라는 '청정한 장엄'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초목의 꽃 '화(花)'자가 아니라, '빛나다 또는 피어나다, 영롱하다'의 뜻이 강한 '화(華)'자를 쓴다. 식물 넝쿨처럼 뻗어 나가는 줄기도, 불교 경전에 나온 대로, '서기(瑞氣, 상서로운 기운)'로 보면 된다. 이러한 장엄이 하나의 둥근 단위 문양을 이루며 소우주처럼, 금니(金泥)로 섬세하게 시문됐다.

가장 겉에 두른 사라를 통해 비춰 보이는 관음보살의 금빛 피부와 옷과 장신구들. 지극히 세밀한 철선묘로 그려진 보관, 장신구, 그리고 군의(裙衣, 허리에서부터 두른 치마)가 복잡함과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지만, 그 위를 한 번 더 투명 사라가 휘감고 있다. 사라 위에 그려진 문양까지 하면, 놀랍게도 무려 7~8개의 문양과 색채가 중층으로 겹치지만, 결코 탁하거나 산란하지 않다. 여기에 고려불화 만의 신묘함이 있다. 문양과 색채가 이토록 많이 겹치면, 통상적으로, 그림은 어둡고 탁하게 된다.

요즘의 현업 작가들이 고려불화 재현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연 '고려불화가 제대로 재현됐는가'라는 시대적 과제의 기준은 '탁한가 아닌가' '청정한가 아닌가'다. 고려불화는 화려하면서도 탁하지 않고 '맑고 청정함'을 한껏 뽐낸다.

이렇듯 지극히 화려한 신체 장엄을 한 번 더 '사라'로 감싸면서, 관음보살은 완성된다. 그래서 관음보살은 마치 투명 유리막이 형성된 듯 오묘하게 빛난다. '교교(皎皎)하다'라는 맞춤 표현이 떠오른다. '교교'라는 용어는 한문학에서, '교교한 달빛'과 같이, 특히 달빛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다. 햇빛과 같이 강렬한 빛이 아니라, 하얗고 투명한 맑은 얼음과 같은 빛을 말한다.

하얀 옷, '투명 사라'의 실체는

관음보살의 도상학적 특징은 크게 2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보관 속 아미타 화불(지난 연재 참조)이고 또 하나는 백의(白衣, 하얀색 천의)이다. 그래서 관음보살을 '백의(白衣) 대사'라고 표현한다. 〈동국이상국집〉에는 관음보살이 '하얀 옷 청정한 모습(白衣淨相)'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백의청상'이라는 개념은 관음보살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의상대사의 낙산사 창건 이야기에도 "(보타락가산을) 소백화(小白華)라고 부르는데, 이는 곧 흰 옷(白衣)을 입은 보살님의 진신이 계신 곳이라 하여 이 뜻을 따서 이름지은 것이다(〈삼국유사〉)"라고 쓰여 있다. 관음이 계신 보타라카(Potalaka)산은 흰 꽃이 만발한 백화수산(白華樹山)이란 뜻이고, 여기에 백의관음이 계시다. 보타라카산은 보타락가산으로 음역되고 이를 줄여서 '낙가산', 이후 '낙산'이 되었다. 그래서 관음도량을 '백화도량'이라고도 한다.

하얀 옷 '백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왜 관음보살은 백의를 입고 있나? 이는 관음보살 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빛'을 형상화한 것이다. 〈대일경소〉에는 '백(白)'이라 함은 '보리(깨달음)의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얀 마음에서 나오는 하얀 빛.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중생을 구하는 '빛의 그물(光網)'이라고 한다.

그래서 관음보살은 하얀 옷 '백의'를 걸치고 있다. 하지만, 고려불화를 제외한 여타 시대 또는 여타 나라들의 백의는 모두 '불투명' 한 하얀 색이다. 이 백의를 고려시대 화승(畵僧)들은 (본 수월관음에서처럼) '투명'하게 표현하는데 지극한 공력을 들여 성공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사마타(집중) 수행 중에 모든 대상이 (뿌옇게 하얗다가) 급기야 투명해지는 현상을 만난다. 〈관무량수경〉에서처럼 '유리의 땅'이 펼쳐지는 것이다.

투명해지는 대상, 투명해지는 천지. 나의 번뇌가 '맑혀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관음보살의 빛'인 것이다. 하얀 옷으로 특징지어지는 '백의관음'. '투명 사라'는 이 '백의'의 고려식 독창적 해석이라 하겠다. 이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려만의 독자적 기술이며 창안으로 세계적 사랑을 받고 있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